모의고사 지문 분석

부록

2023학년도 시즌5 제6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4~9] 사회 통합

미국의 반덤핑 조사 절차와 대응책

지문 평가

반덤핑 조사의 절차를 (가)에서 이해한 뒤, 그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나)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원 시험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독해 요소들을 풍부하게 담아내고 있는 좋은 지문이다.

Keyword

(가) 사회 – 경제학 – 반덤핑 관세
(나) 사회 – 법학 – 반덤핑 절차
덤핑, 반덤핑 관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산업 피해 조사, 미국 상무부(DOC), 덤핑 마진율 조사, 덤핑 마진, 덤핑 마진율, 대칭적 방식, 비대칭적 방식, 마이너스 마진, 제로잉, 동종 상품

(가) 문단 ① 덤핑과 반덤핑 관세

1) 수출 기업이 자국에서의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행위인 **덤핑**으로 인해 수입국의 관련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입국의 정부는 해당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다.

➡ 수출 국가의 정상 가격에 비해 수출 가격이 낮으면 '덤핑'에 해당하는데, 수입 국가는 덤핑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주목 ▲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출'이지만, 그것을 구입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수입'이다. 이에 덤핑에서의 정상 가격은 수입국 시장에서의 가격이 아니라 수출국 시장에서의 가격을 가리킴에 주의하자.

2) 반덤핑 관세는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데,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은 대미(對美) 수출에서 잦은 덤핑 논란을 겪어 왔다.

➡ 반덤핑 관세를 통해 수출 가격을 정상 가격만큼 강제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수출 기업에게는 불리한 조치일 수밖에 없다.

➡ 앞으로는 수출하는 쪽은 한국으로 수입하는 쪽은 미국으로 간주해서, 한국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덤핑으로 판정받지 않을 수 있을지 답을 찾아가 보자.

(가) 문단 ② 미국의 반덤핑 절차

1) 미국의 반덤핑 절차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 피해 조사**와 **미국 상무부(DOC)**의 **덤핑 마진율 조사**로 이루어진 반덤핑 조사로 시작된다.

➡ 미국의 반덤핑 절차는 ITC의 조사와 DOC의 조사로 양분되어 있는데……

2) 덤핑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업의 제소가 DOC에 접수되어 DOC가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면, ……

➡ 덤핑에 대한 소송 제기가 DOC에 접수되면서 반덤핑 절차가 시작된다.

3) …… ITC는 미국 내의 생산자와 수요자, 외국의 수출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예비 질의서의 답변과 제출된 서면 자료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토대로 미국 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실질적인 피해의 위협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예비 판정을 내린다.

➡ 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기관은 DOC가 아니라 ITC이다. 해당 덤핑 제품의 관련자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피해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뒤 우선 '예비' 판정을 내린다[→ 이후에 최종적인 판정이 이뤄질 것을 짐작할 수 있다.].

4) 이때 ITC가 부정 판정을 내리면, DOC의 판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일체의 조사가 바로 종료된다.

➡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는 ITC가 부정 판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 반덤핑 조사 자체가 곧바로 끝나기 때문이다.

(가) 문단 ③ 덤핑 마진율 산출 방식

1) 이와 달리 ITC가 긍정 판정을 내리면, DOC의 덤핑 마진율 조사가 시작된다.

➡ 반면 ITC의 긍정 판정이 내려질 경우, 조사 기관이 DOC로 넘어가 덤핑 마진율 조사가 이루어진다.

2) **덤핑 마진**의 경우 정상 가격에서 수출 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하는데, **덤핑 마진율**은 덤핑 마진을 수출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 '덤핑 마진율 조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덤핑 마진율'을 구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수식의 형태로 정리되는 개념들 간의 관계가 제시되었으니 되도록 수식으로 정리해 두자.

$$\text{덤핑 마진율} = \frac{\text{덤핑 마진}}{\text{수출 가격}} = \frac{\text{정상 가격} - \text{수출 가격}}{\text{수출 가격}}$$

3) DOC가 덤핑 마진율을 산정할 때 정상 가격은 조사 대상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삼되, 수출 물량을 반영한 가중 평균 수출 가격으로 덤핑 마진율을 산출할지, 수출 가격 각각에 가중치를 부여한 개별 덤핑 마진율을 먼저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전체 덤핑 마진율을 산출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자를 **대칭적 방식**, 후자를 **비대칭적 방식**이라 한다.

➡ 덤핑 마진을 구할 때에 필요한 정상 가격은 특정 기간 동안 자국에서의 정상 가격의 평균으로 정해진다. 한편 수출 가격을 구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대칭적 방식'은 '가중 평균 수출 가격'을 구하여 덤핑 마진을 구하는 방식이다.

$$\text{덤핑 마진율} = \frac{\text{정상 가격} - \text{가중 평균 수출 가격}}{\text{가중 평균 수출 가격}}$$

➡ 가령 조사 대상 기간 동안에 수출 물량의 90%가 100달러에 수출되었고 수출 물량의 10%가 150달러에 수출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의 가중 평균 수출 가격은 '$100 \times 0.9 + 150 \times 0.1 = 105$'가 될 것이다.

➡ 반면 '비대칭적 방식'은 '개별 덤핑 마진율'을 먼저 구한다. 수출 가격 각각에 가중치를 부여했다는 것은, 앞선 예시로 생각하면, 각 수출 가격에 대하여 그것의 수출 물량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text{전체 덤핑 마진율} = \text{개별 덤핑 마진율 ①} + \text{개별 덤핑 마진율 ②}$$

$$\text{개별 덤핑 마진율 ①} = \frac{\text{정상 가격} - 100\text{달러}}{100\text{달러}} \times 90\%$$

$$\text{개별 덤핑 마진율 ②} = \frac{\text{정상 가격} - 150\text{달러}}{150\text{달러}} \times 10\%$$

4) 그런데 개별 수출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높아서 **마이너스 마진**이 발생할 때에는 그 차액을 '0'으로 처리하는 **'제로잉'** 관행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런 경우 DOC가 비대칭적 방식을 채택할 때 덤핑 마진율이 상당히 높게 산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마이너스 마진'은 수출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높아 덤핑이 아닐뿐더러 수출 기업이 손실을 본다는 뜻이다. 수출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아야[→ 덤핑 마진이 양(+)의 값을 가져야] 덤핑에 해당하므로, '제로잉'은 덤핑인 경우에 한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해서만 덤핑 마진율을 산출하는 관행인 것이다.

➡ 마이너스 마진이 배제된다면[→ 제로잉이 적용된다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전체 덤핑 마진율'이 더 높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 가령 3)의 예시에서 정상 가격을 120달러라고 가정한다면 '개별 덤핑 마진율 ②'는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데, 이 값이 전체 덤핑 마진율을 구할 때에 배제되므로 전체 덤핑 마진율은 더 높게 산출된다.

5) 대칭적 방식에서는 수출 가격의 평균을 구할 때 수출 가격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반면 '대칭적 방식'은 가중 평균 수출 가격을 구하고 나서 덤핑 마진을 구하므로 마이너스 마진을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 제로잉 관행과도 무관하다.

주목 ▲ 한국의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비대칭적 방식에서 제로잉 관행이 적용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덤핑 마진율이 높게 계산된다면 반덤핑 관세도 높게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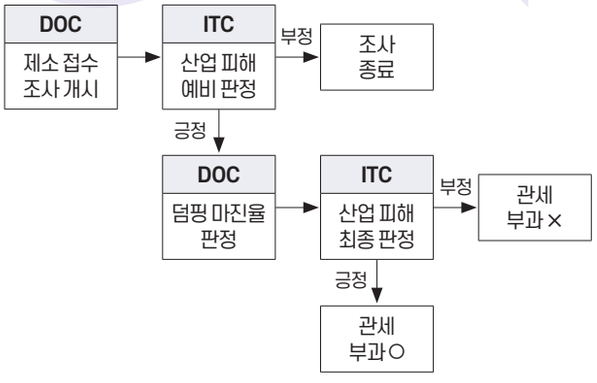
(가) 문단 4 미국 반덤핑 절차의 최종 판정

1) DOC가 덤핑 마진율에 대한 예비 판정을 내리면 최종 판정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다. DOC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실사, 청문회 등을 거쳐 최종 덤핑 마진율을 발표하면, ITC가 산업 피해 유무에 따라 최종 판정을 내린다.

➡ DOC의 덤핑 마진율 조사 또한 예비 판정을 거친 이후에 최종 판정을 거친다. 그것을 토대로 마지막에 ITC가 산업 피해 조사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문단2-3)].

2) 이때 긍정 판정이 내려지면 최종 덤핑 마진율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만, 부정 판정이 내려지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반덤핑 절차의 모든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절차를 고려했을 때 관건은 '산업 피해 조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비 판정에서 부정 판정이 내려지면 그 단계에서 모든 조사 절차가 종료되고, 설사 예비 판정에서 긍정 판정이 내려지더라도 최종 판정에서 부정 판정이 내려지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 문단 1 반덤핑 조사에 대한 대응

1) 미국의 반덤핑 조사 대상 기업 대부분은 보통 산업 피해 조사보다 덤핑 마진율 조사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대응한다. 정량적인 판단을 하는 덤핑 마진율 조사와 달리 산업 피해 조사는 조사 당국의 재량에 따라 정성적인 판단을 하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 대한 수출 기업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을 기반으로 정량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DOC의 덤핑 마진율 조사에 대응하는 편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2) 그러나 산업 피해에 대한 부정 판정이 조사 대상 기업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압도적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산업 피해 조사'에 대한 부정 판정을 노리는 편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맥락 짚기 ▼▲ 통합 지문을 독해할 때에는 (가)의 내용을 (나)에서 능동적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즉 산업 피해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가)의 문단4-2)].

(나) 문단 2 산업 피해 판정 (1) – 동종 상품

1) 산업 피해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동종 상품의 존재, 미국 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혹은 그 위협의 존재, 그리고 덤핑 제품의 저가 판매와 피해 사실 간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 반덤핑 조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산업 피해 조사'에 초점을 맞춘 만큼,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다. 산업 피해 조사에서 긍정 판정이 내려지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들을 전부 충족하여야 한다.

조건 ❶	미국 내 동종 상품의 존재
조건 ❷	미국 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혹은 그 위협의 존재
조건 ❸	저가 판매와 피해 사실 간의 인과 관계 존재

2) **동종 상품**은 본래 동일한 상품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상품이 없는 경우 ITC의 재량에 따라 판단되곤 한다. ITC는 시장에서 수입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을 동종 상품이라 판시한 바 있다.

➡ 먼저 조건 ❶을 입증하려면 해당 덤핑 수입품의 '동종 상품'이 무엇인지를 정해야만 한다. '동종 상품'은 덤핑 수입품과 동일한 상품이며, 동일한 상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ITC의 재량에 의해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이 동종 상품이 된다.

(나) 문단 3 산업 피해 판정 (2) – 실질적 피해 혹은 위협

1) 미국 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는 덤핑 수입 물량이 절대적인 면에서나 미국 내의 생산과 소비에 비교하여 상대적인 면에서 상당한 것인지, 동종 상품과 비교하여 수입품의 상당한 저가 판매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동종 상품의 상당한 가격 하락 혹은 가격 인상 억제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판단된다.

➡ 동종 상품을 정했다면 이어서 조건 ❷를 입증해야 한다. 열거된 정보들을 가볍게 파악하고 넘어가자.

2) 실질적인 피해의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덤핑 수입이 임박한 것이어야 할 것과 반덤핑 관세와 같은 구제 조치가 없을 경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 등이 요구된다.

➡ 실질적인 피해가 아닌 '실질적인 피해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피해가 없지만, 임박한 덤핑에 의하여 피해가 예상된다는 뜻이다.

(나) 문단 4 산업 피해 판정 (3) – 덤핑과 피해 사실의 인과 관계

1) 덤핑 제품의 저가 판매와 피해 사실 간의 인과 관계에 관해서는 그 피해가 조사 대상 제품의 불공정 수입과 판매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 판단은 기본적으로 ITC의 합리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

➡ 마지막으로 조건 ❸의 입증에 관한 설명이다. 관건은 덤핑 수입품의 저가 판매가 미국 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의 '원인'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 ITC는 이를 위해 비조사 대상 제품, 기술 및 소비자 기호의 변화, 국내 생산자 간의 경쟁, 국내 생산자의 경영 판단 등 조사 대상 제품 외의 여러 요소들이 국내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

➡ ITC는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는데,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만큼 조건 ❸에 관해서는 ITC 재량의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3) 이때 조사 대상 제품의 수입량이 증가한 점, 국내 동종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 판매된 점, 제소 기업의 사업이 악화된 점 등은 자료에 의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조건 ❶의 입증은 명확한 편이다. 동일한 상품이 존재하는지, 혹은 그와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면 되기 때문이다[문단2].

➡ 조건 ❷의 입증도 마찬가지이다. '덤핑 수입품의 수입량 증가', '덤핑 수입품의 저가 판매', '제소 기업의 사업 악화'는 모두 미국 내 산업의 피해를 입증하기에 적합한 것들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목 ▲ 여기서 '저가 판매'를 덤핑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덤핑은 '정상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 가격이 낮은 것을 의미하는데[(가)의 문단1-1)], 이는 일차적으로 DOC가 덤핑 마진율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반면 '저가 판매'는 ITC가 미국 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따지는 것으로, 이는 '미국 내 동종 상품의 가격'에 비하여 수출 가격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이 둘은 별개의 개념이다.

4) 그래서 조사 대상 기업의 입장에서는 덤핑 제품의 저가 판매와 피해 사실 간의 인과 관계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 따라서 ITC의 산업 피해 조사에 대한 부정 판정을 노리기 위해서는[문단1-2)], 자료에 의해 비교적 명료하게 판단되는 조건 ❶, ❷와 달리 ITC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는 조건 ❸의 인과 관계를 부인하는 편이 유리하다. 조건 ❶, ❷를 충족하더라도 조건 ❸을 충족하지 않으면 결국 '부정 판정'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❶

1) 미국 기업 갑은 한국 기업 을이 자동차용 베어링을 미국에 수출하면서 덤핑을 했다고 제소했고, 이에 반덤핑 조사가 시작됐다.

➡ 지문의 초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 기업 을'의 입장에서 어떻게 부정 판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의 결론을 고려했을 때 '산업 피해 조사'에 대해 조건 ❸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편이 유리할 것이다.

2)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을은 미국에 총 3차에 걸쳐 베어링을 수출했다. 한국 내에서 평균 50달러로 판매되는 베어링의 개별 수출 가격과 수출 물량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개별 덤핑 마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수출 가격	개별 덤핑 마진율
1차	35달러	30%
2차	45달러	7%
3차	65달러	−4%

➡ 베어링은 한국 내에서 50달러에 판매된다. 이는 '정상 가격'에 해당한다[(가)의 문단1-1)].

➡ '개별 덤핑 마진율'이 주어졌으니 이는 '비대칭적 방식'을 전제로 한다[(가)의 문단3-3)]. 이때 제로잉 관행을 적용하지 않으면 '최종 덤핑 마진율'은 33%가 되고, 적용하면 37%가 된다[→ 마이너스 마진 −4%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 제로잉 관행 적용 ○ : 30% + 7% + 0% = 37%
- 제로잉 관행 적용 × : 30% + 7% + (−4%) = 33%

<보기> 문단 ❷

1) 조사 대상 기간 동안 갑은 자사의 베어링 가격을 60달러로 유지했는데도 영업 이익은 30% 감소했다.

➡ 이때 60달러를 '정상 가격'으로 오인하면 안 된다. 정상 가격은 한국에서의 가격을 가리키지[(가)의 문단1-1)], 미국 기업 갑의 가격을 가리키지 않는다.

➡ 이때 '자사의 베어링'은 곧 덤핑 수입품과 동종 제품이 존재한다는 뜻이다[(나)의 문단2-2)]. 즉 조건 ❶은 입증된다.

➡ 또한 동종 제품의 가격인 '60달러'는 1차, 2차와 비교했을 때에 결국 '저가 판매'를 의미한다. 그리고 영업 이익이 감소하였다는 점은 '제소 기업의 사업 악화'를 의미할 것이다[(나)의 문단4-3)]. 그렇다면 조건 ❷도 입증될 가능성이 높다.

2) ITC는 예비 판정에서 을의 저가 판매로 인해 갑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정했지만, ……

➡ '실질적인 피해'가 을의 저가 판매에 의한 것이라면 조건 ❸까지도 입증된다[(나)의 문단4-1)]. 따라서 '예비 판정'에서는 긍정 판정이 내려졌다.

주목 ▲ 헷갈리지 말자. 결국 긍정 판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산업 피해 판정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ITC가 판단했다는 의미다[(나)의 문단2-1)].

3) …… 조사 대상 기간 이전에 갑이 베어링의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는 사실이 추후 드러났다. 이를 감안하여 ITC는 최종 판정에서 을의 저가 판매와 갑의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 '갑의 가격 인상'이 예비 판정 이후에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덤핑 수입품의 저가 판매와 갑의 실질적 피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더 이상 인정하기가 어려워진다. 갑이 스스로 가격을 인상하였기 때문에 영업 이익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산업 피해 조사의 '최종 판정'에서는 부정 판정이 내려졌다.

∴ ITC는 조건 ❶, ❷에 대해서는 이미 예비 판정에서도 인정했다. 그 이후에 그것을 부정하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조건 ❶, ❷는 최종 판정에서도 입증되는 것이다. 예비 판정 이후에는 조건 ❸을 부정하는 새로운 증거만 드러났을 뿐이다. 따라서 ④번 선지는 적절하다.

4) 단,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을의 가중 평균 수출 가격은 40달러, 미국 내 평균 물가 상승률은 5%였다.

➡ 여기서 '가중 평균 수출 가격'은 '대칭적 방식'에 의하여 덤핑 마진율을 산출하는 데에 필요한 값이다.

$$\frac{\text{정상 가격} - \text{가중 평균 수출 가격}}{\text{가중 평균 수출 가격}} = \frac{50\text{달러} - 40\text{달러}}{40\text{달러}} = 25\%$$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10~13] 예술

니체와 보링거의 예술 충동

지문 평가

'예술 충동'이라는 핵심 개념을 보링거의 관점에서 둘로 구분하고, 니체의 관점에서 다시 둘로 구분하며 각각의 특성을 잡는 전형적인 예술 지문이다. 같은 맥락에 놓이는 '감정 이입 충동–아폴론적 충동'과 '추상 충동–디오니소스적 충동'을 대조하여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Keyword

예술 – 예술 철학 – 예술 충동

보링거, 예술 충동, 감정 이입 충동, 추상 충동, 니체, 아폴론적 충동, 개별화의 원리, 디오니소스적 충동, 힘에의 의지, 도취

문단 1 예술 충동

1) 원시 민족의 벽화에서는 현대의 추상 미술을 연상시키는, 기하학적 도형들로 이루어진 작품이 발견된다.

➡ 원시 민족의 벽화와 현대의 추상 미술 사이에는 아득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하학적 도형이라는 공통 요소가 등장한다.

2) 미술사학자 보링거는 그의 저서 『추상과 감정 이입』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예술 창작과 그 향유의 원천인 **예술 충동**으로, 감정 이입 충동과 추상 충동이 본래적으로 존재한다.

➡ '보링거'의 관점에서 본 예술의 원천은 '예술 충동'이며 이는 다시 본래적인 두 가지 충동으로 구분된다.

3) 원시 민족의 추상적인 벽화는 그중에서 추상 충동의 산물이다. 보링거는 더 나아가 추상 충동에 근거를 둔 양식이 [감정 이입 충동에 근거를 둔 양식보다] 예술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고 보았다.

➡ 원시 민족의 벽화도 현대의 추상 미술도 '추상 충동'에 의한 것이다. 이때 보링거는 추상 충동이 감정 이입 충동에 비해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지문의 초점이 될 것이다.

문단 2 보링거 – 감정 이입 충동과 추상 충동

1) 보링거에 따르면 **감정 이입 충동**은 외부 세계에 대해 편안함을 느낄 때에 외부 대상에 내면의 감정을 투사하고자 하는 충동을 말하며, 이는 대상을 재현하는 자연주의 미술 양식의 근간이 된다.

➡ '감정 이입 충동'에 대한 설명이다. 이는 외부 대상의 재현을 중시하는 '자연주의 미술'과 연결된다.

2) 이와 달리 **추상 충동**은 미지의 자연과 같은 외부 세계에 대해 혼란과 불안을 느낄 때에 드러나는 것으로, 불안에서 벗어나 내면의 안정과 만족을 얻으려는 본능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추상 충동은 외부 대상에 대한 묘사를 배제하고 선, 형태, 색과 같은 조형 요소들로만 이루어진 추상 미술 양식을 낳았다.

➡ '추상 충동'에 대한 설명이다. 추상 충동은 조형 요소들로만 이루어진 '추상 미술'과 연결된다. 원시 민족의 벽화가 추상 미술과 맥락을 같이하는 이유도 그것이 기하학적 도형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문단1–1)].

감정 이입 충동	추상 충동
세계에 대한 편안함 내면의 감정 투사 외부 대상 재현 자연주의 미술	세계에 대한 혼란과 불안 안정과 만족을 얻으려는 본능 조형 요소[→ 외부 묘사 배제] 추상 미술

3) 두 충동 중 추상 충동이 예술에 있어 더 근원적이라는 보링거의 견해에 영향을 미친 것은 니체였다.

➡ 지문의 초점은 '감정 이입 충동과 추상 충동이 어떻게 구분되는가'에 있지 않다. '감정 이입 충동에 비해 추상 충동이 더 예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있다[문단1–3)].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논의가 '니체'의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다.

문단 3 니체 – 아폴론적 충동과 디오니소스적 충동

1) 철학자 니체 역시 예술 충동을 구분하였는데, 그중 **아폴론적 충동**은 질서에 입각하여 하나의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하는 **'개별화의 원리'**를 따른다. 인간은 이 원리를 통해 인식 가능하면서도 이상적이고 완전한 조형 세계를 구축한다. 그 세계는 예술가가 지닌, 일종의 아름답게 질서 지어진 '꿈'이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조형 예술인 회화나 조각에서 이상적인 비례를 이룬 작품으로 드러난다.

➡ '니체'는 보링거와 마찬가지로 예술 충동을 구분했다. 그중 '아폴론적 충동'은 질서에 입각한 '개별화의 원리'를 따르는 충동이다. '완전한 조형 세계', '질서', '꿈', '회화나 조각', '이상적인 비례' 등의 키워드를 챙겨 두자.

2) 그런데 아폴론적 충동의 산물이 개개인으로 하여금 환상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삶에서 겪는 고통을 잠시 잊게 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치유하지는 못한다.

➡ 아폴론적 충동의 한계다. 이를 통해 경험하는 환상은 삶의 고통을 치유하지 못한다. 불안과 공포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한 것이다.

3) 니체가 제시한 또 다른 예술 충동인 **디오니소스적 충동**은 그 치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충동은 무질서를 추구하며 개체 간 그 어떠한 경계도 없애 개별화의 원리를 붕괴시키고, 다양한 개체가 하나로 융합되는 것을 통해 불안과 공포를 딛고 일어서게 하는 '힘에의 의지'로 작용한다. 여기서 **힘에의 의지**란 삶을 지탱하고 세계를 변형하는 생명력을 뜻한다. 주로 비조형 예술인 음악으로 드러나는 이 충동은 결국 내면에서 세상과 나를 하나로 만드는 물아일체의 **'도취'** 경험을 하게 한다.

➡ 반면 '디오니소스적 충동'은 삶의 고통을 치유하는 예술 충동이다. 이는 아폴론적 충동이 추구하는 '개별화의 원리'를 오히려 붕괴시킴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로 인해 작용하는 '힘에의 의지'로 실제로 불안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폴론적 충동	디오니소스적 충동
질서 개별화의 원리 '꿈' 경험 삶의 고통 치유 × 조형 예술인 회화나 조각	무질서 힘에의 의지 '도취' 경험 삶의 고통 치유 ○ 비조형 예술인 음악

4) 그래서 니체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아폴론적인 것에 비해 더 근원적인 예술적 힘을 지닌다고 설명한 것이다.

➡ 한마디로 삶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디오니소스 충동이 보다 근원적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문단 4 현대 추상 예술의 등장 배경

1) 보링거는 추상 충동이 디오니소스적 충동에 상응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추상 충동이 단순한 재현에서 벗어나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보다 예술적인 것이라 판단하였다.

➡ 디오니소스적 충동을 아폴론적 충동보다 근원적인 것으로 본 니체의 관점은, 이렇듯 추상 충동을 감정 이입 충동보다 근원적인 것으로 본 보링거의 관점과 연결된다[문단2–3)]. 즉 추상 충동은 디오니소스적 충동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2) 그는 고대 그리스 이후에 철학의 발달로 외부 세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감정 이입 충동이 지배적인 시대가 이어져 왔으나, ……

➡ 추상 충동은 외부 세계에 혼란과 불안을 느낄 때 드러나는 반면에[문단2–2)], 감정 이입 충동은 외부 세계에 대해 편안함을 느낄 때 드러난다[문단2–1)]. 따라서 외부 세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대에는 감정 이입 충동이 지배적이다.

주목 달리 말하면 먼 과거의 원시 시대에는 외부 세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추상 충동이 지배적인 시대였던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벽화가 그 이후의 재현적인 미술보다도 더 예술적일 수 있었다.

3) …… 20세기에 들어 그 양상이 달라졌다고 보았다. 사회 혼란을 경험하여 불안정하고 불안이 고조되는 현대인의 삶이 현대 추상 예술을 등장하게 하였다는 설명이다.

➡ 20세기에 들어 다시 추상 충동이 시대적으로 나타난 이유다. 추상 충동은 외부 세계에 대해 혼란과 불안을 느낄 때 드러나는 것이므로[문단2–2)], 사회 혼란을 계기로 현대 추상 예술이 등장했다는 설명이다.

4) 추상과 관련한 니체와 보링거의 관점은 이렇듯 자유분방하고 다채로운 현대 추상 예술 탄생의 이론적 토대로 작용하였다.

➡ 지금까지 알아본 니체와 보링거의 관점이 갖는 예술사적 의의를 정리하고 있다. 현대 추상 예술의 또 다른 특징으로 자유분방함과 다채로움을 연결해 주며 마무리하자.

[14~17] 기술

가우시안 피라미드 기법

지문 평가

정합 기법에 필요한 '가우시안 피라미드' 기법을 설명하는 전형적인 기술 지문이다. 어떤 특징점들을 추출하려는 상황인지에 주목하여 그 과정을 순차적으로 잘 따라 독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

기술 – 영상 기술 – 가우시안 피라미드

360° 영상, 정합 기법, 특징점, 화소, 화솟값, 스케일, 가우시안 피라미드, 가우시안 필터, 옥타브, 극소점, 극대점

문단 1 360° 영상을 위한 정합 기법

1) 카메라 주위 360°의 상황을 담은 **360° 영상**은 모든 방향에서 시야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을 갖는다. 360° 영상은 특수하게 제작된 고가의 360° 전용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지만, ……

➡ 뚜렷한 장점을 갖는 360° 영상을 촬영하려면 전용 카메라가 필요하다. 다만 이는 '특수하게 제작된 고가의' 물건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누구든 쉽게 360° 영상을 촬영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 일반 카메라들로 촬영한 영상들을 이어 붙여서 360° 영상을 합성하는 **정합 기법**으로 얻기도 한다.

➡ 다만 '정합 기법'을 동원하면 일반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로도 360°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3) 위치와 각도가 조금 다른 두 카메라로 촬영한 두 개의 원본 영상을 이어 붙이려면 겹쳐지는 부분을 찾아, 그 부분에 존재하는 대상들에서 공통적인 **특징점**들을 찾아 이어 맞춰야 이음새가 매끈해진다.

맥락 짚기 정합 기법을 적용하는 상황을 '두 개의 원본 영상을 이어 붙이는 상황'으로 단순화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하여 정합 기법의 원리 및 과정을 이해하면 된다.

➡ 정합 기법을 사용하려면 일단 두 영상이 어떻게 이어 붙여지는지[→ 겹쳐지는지] 파악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징점'이라는 것들을 찾아야 한다.

문단 2 적합한 특징점의 조건

1) 영상의 기본 단위로서 배열되어 있는 작은 점들인 **화소**들은 각각 밝기를 나타내는 **화솟값**을 지니는데, 보통 인접한 화소들과 비교하여 화솟값의 차이가 큰 화소를 특징점으로 추출할 수 있다.

➡ 특징점으로 적합한 화소는 바로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화솟값의 차이가 큰 화소'다. 상대적으로 더 밝아지거나 더 어두워지는 것들이 유용하다.

2) 그런데 두 원본 영상을 이어 붙일 때에 필요한 특징점은 대상의 모서리같이 보다 뚜렷한 특징을 갖는 점들이다.

➡ 두 영상을 이어 붙이려면 특히나 그 차이가 뚜렷한 화소들을 특징점으로 삼아야 한다. 즉 우리가 찾아야 하는 특징점은 그것이 영상에서 나타내는 대상의 특징을 선명하게 잘 반영하는[→ 모서리같이 보다 뚜렷한 특징을 갖는] 화소인 것이다.

3) 또한 두 원본 영상의 **스케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합한 특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스케일이 작은 영상은 대상의 세부가 강조되는 선명한 것이며, 스케일이 큰 영상은 대상의 전체가 강조되는 흐릿한 것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스케일의 정의를 제시하는 대신 관련된 개념들 간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 스케일↓ ⇨ 대상의 세부 강조↑[→ 대상의 전체 강조↓]
> ⇨ 영상의 선명도↑

➡ 이때 우리가 이어 붙이는 두 원본 영상은 애초에 다른 카메라로 촬영된 것이다[문단1–3]. 즉 두 영상은 '스케일'이 일치하지가 않는다. 이까지 고려하여 특징점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스케일이 다른 경우에서도 공통적인 특징점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가 추출해야 하는 특징점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대상의 모서리와 같이 뚜렷한 특징을 갖는다[→ 인접한 화소들에 비해 화솟값의 차이가 특히 크다.].
> • 동일한 대상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스케일이 달라져도 공통적으로 추출된다[→ 스케일의 변화에 불변한다.].

4) 이러한 조건들이 반영된 특징점을 찾기 위해 **'가우시안 피라미드'** 기법이 사용된다.

➡ '가우시안 피라미드' 기법은 360° 영상 합성에 적합한 특징점들을 원본 영상에서 추출할 수 있는 기법이다. 앞으로 '가우시안 피라미드' 기법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자.

문단 3 가우시안 필터에 따른 옥타브 생성

1) 가우시안 피라미드 기법에 따라 먼저 원본 영상에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하여 새 영상을 만들고 그 새 영상에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하여 또 다른 새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반복하여 원본 영상을 포함, 5개의 영상을 만든다. **가우시안 필터**는 인접한 화소의 화솟값들 간의 크기 차이를 일정한 비율만큼 줄이는 것으로, 해당 필터를 적용할 때마다 점차 흐릿해진 영상이 만들어진다.

➡ 먼저 '가우시안 필터'를 반복 적용하여 5개의 영상을 얻는다[→ 가우시안 필터를 4번 적용한 결과다.].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해서 얻은 영상은 그 이전의 영상에 비해 스케일이 커진다.

2) 이는 스케일이 점차 커지는 효과를 낳으며, 비교적 뚜렷한 특징점들의 경우에는 흐릿해진 상황에서도 잘 추출된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 이렇게 스케일을 일정하게 증가시켜서 새 영상을 반복적으로 만드는 이유는 스케일이 달라져도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특징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문단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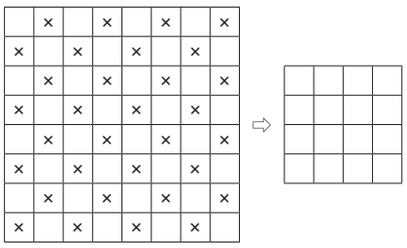
3) 이렇게 얻은 5개의 영상을 맨 아래의 원본 영상부터 순서대로 쌓아 놓은 것을 첫 번째 옥타브라 한다. **옥타브**는 특징점들을 추출하는 단위가 되는 영상들의 묶음이다.

➡ 이렇게 얻은 5개의 영상들을 하나의 '옥타브'라고 칭한다. 맨 아래의 영상이 가장 선명하고, 맨 위의 영상[→ 가우시안 필터가 4번 적용된 영상]이 가장 흐릿하다.

문단 4 옥타브들을 쌓은 가우시안 피라미드

1) 이어 첫 번째 옥타브의 가장 흐릿한 영상[→ 맨 위의 영상]에서 가로세로 짝수 번째 화소들만 모두 제거하면 크기가 1/4로 축소되어 스케일은 유지되면서 인접한 화솟값들의 차이가 조금 더 커진 영상이 만들어진다.

➡ 영상의 짝수 번째 화소만을 제거한다면 가로 화소의 개수는 절반이 되고, 세로 화소의 개수도 절반이 된다. 결과적으로 영상의 크기는 1/4로 줄어든다.



첫 번째 옥타브 5번째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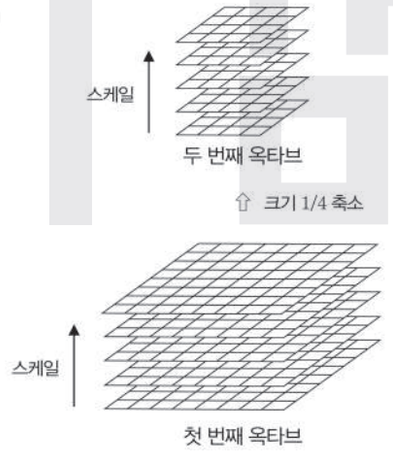
주목 ▲ 이를 통해 영상의 '크기'가 화소의 개수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영상의 '스케일'은 유지된다는 설명을 토대로 크기와 스케일은 함께 변하는 값이 아니라는 점도 이끌어 낼 수 있다.

2) 이 영상을 토대로 다시 가우시안 필터를 반복 적용하며 5개의 영상으로 이루어진 두 번째 옥타브를 만든다.

➡ 이렇게 얻은 영상에 다시 가우시안 필터를 반복 적용하여 두 번째 옥타브를 얻는다. 이에 따르면 '두 번째 옥타브의 맨 아래의 영상'은 '첫 번째 옥타브의 맨 위의 영상'과 스케일은 같지만 크기는 1/4로 줄어든 영상이 된다.

3) 이렇게 옥타브들을 쌓아 두면 마치 피라미드와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만드는 이유는 크기를 줄이지 않은 채 가우시안 필터만 반복 적용할 경우에 특징점이 아예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영상의 크기를 축소하여 또 다른 옥타브를 만들면 특징점이 지나치게 적게 추출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 이전 옥타브와 그다음 옥타브를 쌓으면 '피라미드 구조'가 만들어진다. 옥타브로 구분 지은 사이마다 영상의 크기를 축소하는 과정을 한 차례씩 진행하기 때문이다.



➡ 영상의 크기를 축소하지 않는다면 가우시안 필터를 반복 적용함에 따라 인접한 화솟값들 간의 크기 차이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문단3–1].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영상의 화소들은 전부 비슷한 화솟값을 갖게 되어 특징점을 추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하면 영상에서 홀수 번째 화소와 짝수 번째 화소 간의 화솟값 차이가 줄어든다. 이때 짝수 번째 화소만을 제거한다면, 상대적으로 화솟값 차이가 덜 줄어든 셈이 된다. 이러한 효과를 노리고 '짝수 번째 화소만을 제거하는 것'이다.

참고 ▼ 영상의 크기를 축소하는 과정에 의해 인접한 화솟값의 차이가 커진다면 영상이 상대적으로 선명해지므로 스케일도 작아진다고 추론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런데 스케일이 일정 수준으로 증가했을 때에만 영상의 크기를 축소시킨다면, 영상에 담긴 대상에 대한 정보의 선명도는 달라지지 않아서 스케일이 변하지 않는다. [지문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각 옥타브에서 가우시안 필터를 4번씩만 적용하는 이유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문단 5 가우시안 피라미드에서의 특징점 추출

1) 가우시안 피라미드를 완성한 후에는 각 옥타브에서 특징점들을 추출한다.

➡ 일정 개수의 옥타브를 생성하면 '가우시안 피라미드'가 완성된다. 완성된 가우시안 피라미드에서는 각각의 옥타브에서 특징점들을 추출하게 되는데……

가우시안 필터 4회 반복 적용
⇩
5개의 영상을 묶어 옥타브 생성
⇩
마지막으로 얻은 영상의 크기 1/4 축소
⇩
가우시안 필터 4회 반복 적용
⇩
⋮

맥락 짚기 지금까지는 가우시안 피라미드를 얻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로부터 실제로 특징점을 추출하기 위한 과정이 제시될 것이다.

2) 우선 옥타브를 이루는 하나의 영상마다 화소가 가로 3개, 세로 3개인 정사각형의 여러 가능한 묶음들을 모두 대상으로 삼아 그 중심에 놓인 화소가 나머지 화소들과 비교했을 때에 화솟값이 가장 작으면 **극소점**, 가장 크면 **극대점**이라 하여 특징점의 후보로 삼는다.

➡ 특징점을 추출하려면 먼저 특징점의 후보를 찾아야 할 텐데, 이는 '극소점'과 '극대점'을 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징점은 인접한 화소들과 비교하여 화솟값의 차이가 큰 화소인 만큼 이러한 화소들을 먼저 찾는 것이다[문단2-1)].

3) 이렇게 찾은 특징점의 후보들이 해당 옥타브의 바로 위 영상과 아래 영상에서 동일한 위치의 화소에 같은 극소점 혹은 같은 극대점으로서 특징점의 후보가 되는 경우 그것을 특징점으로 확정한다.

➡ 그렇게 얻은 특징점의 후보는 그것이 위아래 영상의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극소점 혹은 극대점일 때에만 특징점으로 확정된다.

주목 스케일이 작아지거나[→ 바로 아래 영상], 스케일이 커지더라도[→ 바로 위 영상] 그것이 여전히 특징점의 후보로 추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문단2-3)].

➡ 물론 가우시안 피라미드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원본 영상에서 특징점들을 추출하는 것인 만큼, 각 옥타브에서 확정한 특징점을 실제로 원본 영상에서 찾는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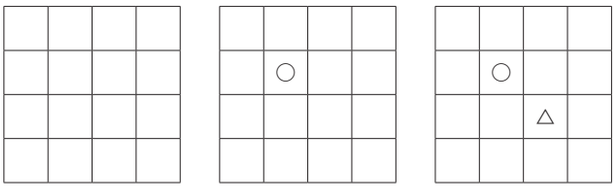
4) 이렇게 두 원본 영상에 대해 얻은 공통적인 특징점들을 토대로 하고 스케일의 차이까지 적절하게 고려하면 영상을 매끈하게 이어 붙일 수 있다.

➡ 지금까지의 과정을 거치면 각 원본 영상에 대하여 특징점들을 추출할 수 있다. 동일한 대상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두 원본 영상의 스케일이 다르더라도 공통적인 특징점이 추출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 영상을 어떻게 이어 붙여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다음은 별도의 카메라로 촬영한 두 영상에 대해 정합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그중 한 원본 영상을 토대로 만든 '가우시안 피라미드'에서 두 번째 옥타브를 이루는 연속된 영상들 중의 일부이다. ㉮~㉰ 중에 가장 먼저 생성된 ㉮에서 어떤 것들이 특징점의 후보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에 이어 ㉯와 ㉰의 순으로 영상이 생성되었다. (각 영상에서 극소점은 ○, 극대점은 △로 표기된다.)



영상 ㉮ 영상 ㉯ 영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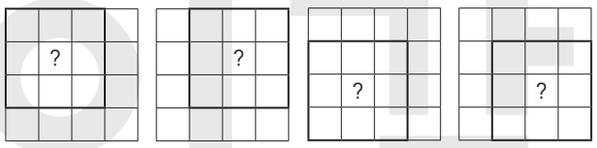
맥락 짚기 지문과 마찬가지로 두 영상을 이어 붙이는 상황이다. 지문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 '두 번째 옥타브를 이루는 연속된 영상들'이라면 이들은 원본 영상에 비해 크기가 1/4로 축소된 것이다[문단4-1)]. 즉 원본 영상은 가로 8행, 세로 8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또한 이들은 두 번째 옥타브를 이루는 것들 중 '일부'이다. 하나의 옥타브를 구성하는 영상은 5개이기 때문이다[문단3-3)]. 편의상 나머지 2개의 영상을 ㉱, ㉲라고 칭하자. ㉱, ㉲는 ㉮보다 먼저 생성된 것일 수도, ㉰보다 나중에 생성된 것일 수도 있다.

➡ ㉮~㉰는 연속적으로 얻은 것이고, 그중 ㉮를 가장 먼저 생성하였으니 ㉮에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한 것이 ㉯, 그것에 다시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한 것이 ㉰이다. 즉 이들 중에서는 ㉮의 스케일이 가장 작고, ㉰의 스케일이 가장 크다[→ ㉰가 가장 흐릿한 영상이다].

➡ ㉮에서는 아직 특징점의 후보들이 구해지지 않았다. 3×3의 묶음들을 모두 대상으로 삼아 특징점의 후보를 찾게 될 것이다.



∴ ㉮~㉰를 통해 특징점이 추출되려면 영상 ㉯에서 찾은 극소점이 바로 위 영상인 ㉱에서도, 그리고 바로 아래 영상인 ㉮에서도 극소점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특징점도 확정되지 않기 때문이다[문단5-3)]. 따라서 ④번 선지가 적절하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1~26] 고전시가

(가) 「저곡전가팔곡」 – 이휘일 –

수록 지문 평가

농촌에 살며 농민을 교화하여 농업을 진흥하는 것에서 사대부로서의 보람을 찾으려 했던 작가의 삶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서사와 춘(春), 하(夏), 추(秋), 동(冬) 사계절, 하루 일과를 나타내는 세 개의 시간으로 구성된 총 8수의 연시조이다.

제 1수 서사 – 원풍(願豐, 풍년을 기원함)

세상의 버린 몸이 견무(畎畝, 밭의 고랑과 이랑. 여기서는 농사짓는 시골을 의미함)에 늙어 가니

➡ 자신이 세상에 나가 나라의 큰일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농촌에서 늙어 가고 있다는 말이다. '버린 몸'이라는 표현에서 좌절감을 엿볼 수 있다.

바깥일 내 모르고 하는 일 무슴 일고

➡ 세상의 일은 모르고, 다만 농사에 전념할 뿐이라는 뜻이다.

이 중에 우국 성심은 연풍(年豐, 풍년이 듦)을 원하노라

➡ 농사에 전념하면서,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으로 풍년을 기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사에 매달린 화자로서는 풍년을 이뤄 내는 것이 곧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니, 풍년을 원하는 마음이 곧 우국이요 충성심인 것이다.

제 3수 하(夏)

여름날 더운 적에 단 땅이 불이로다

→ 여름날 더울 때 [햇볕으로] 달구어진 땅이 불처럼 뜨겁도다.

밭고랑 매자 하니 땀 흘러 땅에 듣네

→ 밭고랑[을] 매고 있으니 땀[이] 흘러 땅에 [뚝뚝] 떨어지네.

어사와 입립신고(粒粒辛苦, 곡식의 낟알 하나하나에 맺힌 농부의 피땀) 어느 분이 알으실꼬

→ 아아, 곡식 한 알 한 알을 키워 내기 위해 농민이 쏟아부은 노고를 어느 누가 알겠는가.

제 4수 추(秋)

가을에 곡식 보니 좋음도 좋을시고

→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무르익은] 곡식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구나.

내 힘에 이룬 것이 먹어도 맛이로다

→ 내 힘으로 거둔 것이[라서] 먹어도 [더욱] 맛이 좋구나.

이 밖의 천사 만종(千駟萬鐘, 세상의 지위와 권력)을 부러 무슴 하리오

➡ 농촌의 삶에 대한 만족감, 스스로 노력하여 먹고사는 삶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 있다.

제 5수 동(冬)

밤에는 새끼 꼬고 저녁에는 띠풀 베어

→ [긴긴 겨울]밤에는 [짚으로] 새끼를 꼬고 낮에는 띠를 베어

초가집 잡아매고 농기구 좀 손보아라

→ [준비해 둔 새끼와 띠로] 초가집 지붕을 손질하고 [한 해 동안 사용한] 농기구를 정비해라.

내년에 봄 온다 하거든 결의 종사(縱事)(= 뜻을 굳게 정하여 어떤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함)하리라

→ 내년에 봄[이] 오거든 굳게 마음먹고 농사에 힘쓰리라.

➡ 농한기에 이듬해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의 건실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31~34] 현대소설

「만무방」 – 김유정 –

수록 지문 평가

김유정의 소설을 설명할 때 '아이러니한 상황', '해학성', '사회 고발'이라는 말이 꼭 나오는 이유를 잘 알 수 있는 작품이다. 이에 주목하면서 읽어 보자. 또한 김유정은 소설 속에서 강원도 지방의 토속적인 사투리, 개인적으로 만들어 낸 말 등을 많이 섞어 쓰는 소설 언어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제목 '만무방'은 염치가 없이 막된 사람을 뜻한다.

그래도 즈이 딴은 무어 농사 좀 지었답시고 악을 복복 쓰며 잘도 떠들어 댄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어디인가 형언치 못할 쓸쓸함이 떠돌지 않는 것도 아니다.[→ 가을을 맞은 농민들의 모습에 대한 서술이다. 나름으로 떠들썩한 와중에도 쓸쓸함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삼십여 년 전 술을 빚어 놓고 쇠를 울리고 흥에 질리어 어깨춤을 덩실거리고 이러던 가을과는 저 딴 쪽이다.[→ 예전의 가을은 흥겨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가을이 오면 기쁨에 넘쳐야 될 시골이 점점 살기만 띠어 옴은 웬일인고. 이렇게 보면 재작년 가을 어느 밤 산중에서 낫으로 사람을 찍어 죽인 강도가 문득 머리에 떠오른다. 장을 보고 오는 농군을 농군이 죽였다. 그것도 많이나 되었으면 모르되 빼앗은 것이 한 끗 동전 네 닢에 수수 일곱 되.[→ 얼마 되지 않는 푼돈과 보잘것없는 물건이다.] 게다 흔적이 탄로 날까 하여 낫으로 그 얼굴의 껍질을 벗기고 조깃대강이 이기듯 끔찍하게 남기고 조긴 망나니다. 흉악한 자식. 그 알량한 돈 사 전에, 나 같으면 가여워 덧돈을 주고라도 왔으리라.[→ 응칠의 생각이다. 흉흉해진 시골의 분위기와는 달리, 응칠은 나름 인정 있는 사람이다.] 이번 놈은 그따위 깍다귀나 아닐는지 할 때 찬김과 아울러 치미는 소름에 머리끝이 다 쭈뼛하였다. 그간 아우의 농사를 대신 돌봐 주기에 이럭저럭 날이 늦었다. 오늘 밤에는 이놈을 다리를 꺾어 놓고 내일쯤은 봐서 설렁설렁 뜨는 것이 옳은 일이겠다. 이 산을 넘을까 저 산을 넘을까 주저거리며 속으로 점을 치다가 슬그머니 코를 골아 올린다.

➡ 가을을 맞아 추수를 해도 예전 같은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고 점점 흉흉해지고 있는 시골의 상황을 응칠의 시각에서 진술하고 있다. 수록 지문 이전에서 동생 응오가 벼를 도둑맞았고, 지금 응칠은 벼를 훔친 범인을 찾기 위해 벼르고 있는 중이다. 동생의 벼를 훔친 범인만 잡고 나면 이 고장을 떠나려고 한다.

밤이 내리니 만물은 고요히 잠이 든다. 검푸른 하늘에 산봉우리는 울퉁불퉁 물결을 치고 흐릿한 눈으로 별은 떴다. 그러다 구름 떼가 몰려 닥치면 깜깜한 절벽이 된다. 또한 마을 한복판에는 거친 바람이 오락가락 쓸쓸히 궁글고 이따금 코를 찌름은, 후련한 산사 내음새. 북쪽 산 밑 미루나무에 싸여 주막이 있는데 유달리 불이 반짝인다.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노랫소리는 나직나직 한산히 흘러온다. 아마 벼를 뒷심 대고 외상이리라—.

➡ 서술자가 초점 인물인 응칠에서 빠져나와, 서술자의 시각으로 풍경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수확의 계절인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황량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외상' 등의 표현을 통해 궁핍한 현실을 엿볼 수 있다.

응칠이는 잠자코 벌떡 일어나 바깥으로 나섰다. 그리고 다 나와서야 그 집 친구[→ 응칠이 신세를 의탁하고 있는 친구]에게 눈치를 안 채이도록,

"내 잠간 다녀옴세—."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어딜 가나?"

친구는 웬 영문을 몰라서 뻔히 쳐다보다 밤이 이렇게 늦었으니 나갈 생각 말고 어여 이리 들어와 자라 하였다. 기껏 둘이 앉아서 개코쥐코 떠들다가 급자기 일어서니까 꽤 이상한 모양이었다.

"건너말 가 담배 한 봉 사 올라구."

➡ 응칠은 친구의 집에서 신세를 지면서도, 곡식 수확과 관련한 일을 도와 달라는 친구의 요청을 노름에 정신이 팔려 들어주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니 노름판에 간다고 말하기 멋쩍어 둘러대고 있는 것이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노름판이 펼쳐진 굴에 도착한 응칠은 아내와 갈라선 기호에게 돈을 꾸어 노름을 한다.

응칠이가 한 장을 내던지고 명월 공산을 보기 좋게 떡 젖혀 놓으니,

"이거 왜 수짜질이야!"

용구는 골을 벌컥 내며 쳐다본다.

"뭐가?"

"뭐라니, 아 이 공산 자네 밑에서 빼내지 않았나?"[→응칠의 사기]

"봤으면 고만이지 그렇게 노할 건 또 뭔가—."

응칠이는 어설피 입맛을 쩍쩍 다시다,

"그럼 이번엔 파토(= 파투. 화투 놀이에서, 잘못되어 판이 무효가 됨)지?"

하고 손의 화투를 땅에 내던지며 껄껄 웃어 버린다.

➡ 사기를 쳐서 걸렸는데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응칠이 윤리적인 인물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때 한옆에서 별안간,

"이 자식, 죽인다—."

악을 쓰는 것이니 모두들 놀라며 시선을 몬다. 머슴이 마주 앉은 상투의 뺨을 갈겼다. 말인즉 매조 다섯 끗을 업어 쳤다고.[→상투가 사기를 쳤다는 것]

하나 정말은 돈을 잃은 것이 분한 것이다. 이 돈이 무슨 돈이냐 하면 일 년 품을 판 피 묻은 사경(= 머슴이 한 해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나 물건)이다. 이런 돈을 송두리 먹다니—.

➡ 머슴은 상투가 사기를 쳤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로 상투가 사기를 쳤는지는 알 수 없다. 상투가 사기를 쳤든 그렇지 않든, 머슴은 피 같은 돈을 잃은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돈을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이 자식, 너는 야마시꾼(= 사기꾼)이지. 돈 내라."

멱살을 훔켜잡고 다시 두 번을 때린다.

"허, 이놈이 왜 이래누, 어른을 몰라보구."

상투는 책상다리를 잡숫고 허리를 쓰윽 펴더니 점잖이 호령한다.[→체면을 중시하는 태도] 자식뻘 되는 놈에게 뺨을 맞는 건 말이 좀 덜 된다. 약이 올라서 곧 일을 칠 듯이 응뎅이를 번쩍 들었으나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악에 바짝 받친 놈을 건드렸다가는 결국 이쪽이 손해다. 더럽단 듯이 허허, 웃고,

➡ 머슴이 돈을 잃어서 악에 바짝 받쳤으니, 괜히 맞붙었다가는 화를 입는다는 것이다. 어차피 상투는 돈을 딴 마당이니, 머슴에게 맞아 화가 나더라도 그냥 넘어가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버릇없는 놈 다 봤고!"

하고 꾸짖은 것은 잘됐으나 기어이 어이쿠, 하고 그 자리에 푹 엎으러진다. 이마가 터져서 피가 흘렀다. 어느 틈엔가 돌멩이[→머슴이 던진 돌멩이]가 날아와 이마의 가죽을 터친 것이다.

➡ 이렇듯 당장 먹고살 돈을 노름판에 들고 오는 것은, 단순한 도박 중독 때문이라기보다는 결국 그 돈만으로는 일 년 생활이 안 될 만큼 현실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응칠이는 싱글거리며 굴을 나섰다. 공연스레 쑥스럽게 일이나 벌어지면 성가신 노릇이다. 그리고 돈 백이나 될 줄 알았더니 다 봐야 한 사십 원 될까 말까. 그걸 바라고 어느 놈이 앉았는가—.

➡ 응칠은 전과범이다. 그러니 괜히 노름판에서의 시비에 말려들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자리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딴 것은 본밑을 알라(= 본전을 아울러) 구 원 하고 팔십 전이다. 기호에게 오 원을 내주고,

"자, 반이 넘네. 자네 계집 잃고 돈 잃고 호강이겠네."

농담으로 비웃어 던지고는 숲속으로 설렁설렁 내려온다.

"여보게, 자네에게 청이 있네."

재성이 목이 말라서 바득바득 따라온다. 그 청이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저에게 돈을 다 빼앗기곤 구문이겠지. 시치미를 딱 떼고 나 갈 길만 걷는다.[→돈을 달라는 말인 줄 짐작하고 시치미 떼는 모습]

"여보게 응칠이, 아, 내 말 좀 들어!"

그제는 팔을 잡아낚으며 살려 달라 한다. 돈을 좀 늘릴까, 하고 벼 열 말을 팔아 해 보았더니 다 잃었다고. 당장 먹을 게 없어 죽을 지경이니 노름 밑천이나 하게 몇 푼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벼를 털었으면 그저 먹을 것이지 어쭙잖게 노름은—.

"그런 걸 왜 너보고 하랬어?"

하고 돌아서며 소리를 빽 지르다가 가만히 보니 눈에 눈물이 글썽하다. 잠자코 돈 이 원을 꺼내 주었다.[→나름 인정 있는 응칠의 모습]

➡ 당장 먹고살 것이 없으니 노름을 하게 돈을 달라는 상황이 좀 웃기기도 하고 어처구니없다. 그런데 재성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하다. 이것 역시 도박 중독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다.

➡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인 1935년에 창작된 작품으로,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뜯기고 나면 빚만 남게 되는 농촌의 현실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면, '중략' 이후 장면은 결국 성실하게 살아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그래서 도박 등에 의존해야 하는 모순된 식민지 현실을 고발하는 대목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